

서울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현황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2015년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연구모임 오브스트리트

이다솜

1. 유기 동물

입양 혹은 구매 절차의 간단함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의 고착화, 보호받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사육 환경, 유기된 동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유기 동물의 발생이 끊이지 않음

유기동물 문제 진단

1

반려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반려 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의 부재 혹은 접근의 어려움
- 입양 혹은 구매의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필요 자격이 거의 없음
- 순종에 대한 오해로 판매업과 가정분양이 성행해 악순환이 되고 있음

2

유기 동물 관리 시스템 문제점

- 동물을 잃어버린 후, 찾는 과정에서의 체계화된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 실질적인 지역 통합 커뮤니티가 부재함
-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
-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절차와 접근의 어려움


3

반려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 비싼 동물 병원의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반려 동물의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중재기구의 부재
 - 공적 보험제도의 부재와 부가세의 부과
 - 수가제 폐지로 인해 병원끼리 천차만별인 진료비
- 반려인들만의 중심 커뮤니티가 없어 정보 공유가 제한적임



사진 출처, 경향신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정책적 보호를 통한
환경 개선이
동시에 요구됨**

1. 유기 동물

반려 동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공교육에 포함시켜 시민 의식 개선, 반려 동물 지역 통합 커뮤니티를 조성을 통해 유기 동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빠른 대처 실시, 동물 병원 통합 관리로 반려 동물 인구 보호가 필요함

유기동물 관련 정책 건의

기대 효과

1

반려 동물
인식 개선
공교육 실시

- 궁극적인 인식의 개선은 가치관이 정립되는 유아, 청소년기가 적기임
- 정책적인 지시 없이는 공교육에서 인식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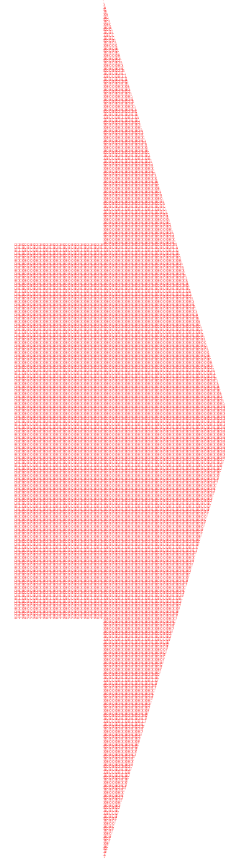
반려 동물
지역 통합
커뮤니티
조성

- 동물 실종시, 지역 내에서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임
- 커뮤니티가 촘촘하고 체계적일 수록 반려 동물 인구의 권리 보호가 손쉬움
- 동사무소 혹은 공원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필요

3

동물 병원
통합 관리

- 유기로 이어지는 반려동물 사육 포기 원인의 압도적인 1위가 '경제적 부담'임



- **반려 동물을 애완이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임**
- 입양시 신중한 선택으로 고의적인 유기가 사라짐
- **순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짐**
- 수요가 사라져 동물 판매업, 퍼피밀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됨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현재의 중구난방인 유기견 관리 센터들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체계화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유기가 줄고, 반려 동물 인구가 증가함**

2. 길고양이

법적인 보호조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길고양이, 머릿 수 채우기에 급급한 중성화(TNR) 사업,

길고양이 관리는 캣맘 중심의 시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황으로 인하여 길고양이의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길고양이 문제 진단

1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길고양이

- 동물등록제에서도 제외되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보호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학대 사건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위험하고
비체계적인
중성화 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머릿 수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실제 중성화 수술 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길고양이의 수가 많음 (폐사, 방사 장소 미준수 등)
- 불법 포획 등 악용될 소지가 짙은 ‘길고양이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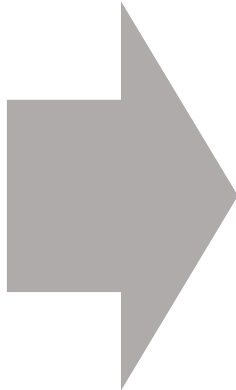
3

시민에게
길고양이 관리
책임을 전가

- 지역 캣맘 등 시민들을 중성화 사업의 포획 및 방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함.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용, 제도권의 역할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음. 법적 권력이 없는 이들은 이러한 활동 중 다른 시민들과의 갈등 상황에 빈번히 노출됨



사진 출처, 웰빙코리아뉴스



**체계적인 정부의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시민의 참여와
중성화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2. 길고양이

정부 주체의 길고양이 통합 관리 사이트를 개설해, 그들이 법적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길고양이의 무거운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밝고 즐거운 인식을 주는 양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길고양이 관련 정책 건의

기대 효과

1

정부 주체의
통합 관리
사이트 개설

- 길고양이 관련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 방법, 대처 방안을 한군데에 아카이빙
-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재밌고 접근이 쉬운 콘텐츠들의 확보가 중요 ex) 길고양이 관련 전시나 축제 혹은 재미있는 사례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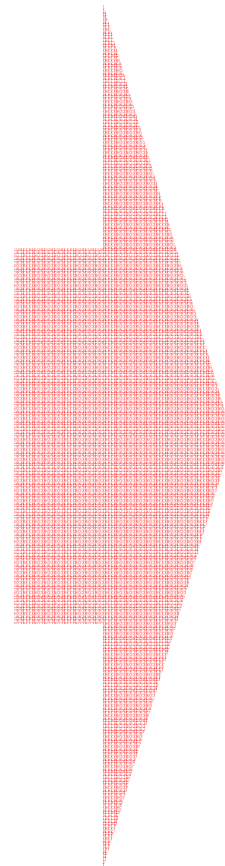
지역 단위의
관리

- 길고양이 특성상 동네 단위의 관리가 요구됨
- 정부 주도로 길고양이를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3

중성화 사업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여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
 - 기술적 개선 : 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TNR
 - 제도적 개선 : 이해관계자 관리
- 캣맘 등 실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통합적, 전문적 표준 지침의 마련이 필요



- 서울시 개설 사이트로 길고양이가 제도적 관리를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 재고
- 길고양이 학대 사건 미연 방지
- 사이트의 긍정적인 콘텐츠들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인식 자연스럽게 개선
-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길고양이에 대한 주인 의식과 책임감이 생겨 제도의 영역 밖까지 관리
- 중성화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 이행 - 양보다 질의 중요
- 개체수 조절로 지속가능한 길고양이와의 공존

감사합니다.

2015년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연구모임 오브스트리트

이다솜

M dsm1229@naver.com

P 010-6591-2425

S www.ofstreet.net